

2010

3월 14일

제18권 11호 마데테스

18권 11호 3월 14일 출간

대한예수교장로회

온석교회



칼럼 column

● 삶에 대한 생각 ●

사는 것이 재미없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병원으로 달려가서 주사 바늘을 몸에 꽂고 몸에는 호스를 주렁주렁 달고 고통 속에서 살고 싶어 몸부림치는 환자를 만나 보십시오. 지금 건강한 몸으로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과분한 복을 받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는 것이 초라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공원이나 지하도, 역 대합실로 달려가서 하루를 살려고 떨며 엄동설한 밤을 지새우는 노숙자를 만나 보십시오. 당신이 초라하다고 생각하며 사는 집이 얼마나 큰 궁궐이며 파스한 공간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는 것이 힘들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까? 재래시장에서 나물 몇 가지, 시들어 가는 배추를 놓고 팔아서 하루를 살려고 몸부림치는 머리는 하얗고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한 할머니를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손톱이 닳도록 산에서 캐온 달래, 냉이, 쑥, 시들어 가는 배추를 깎지 말고 사면서 ‘그것 팔아서 하루에 얼마를 버는가?’ 물어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사치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없어서 불만입니까? 오늘 장애인 시설로 가보십시오. 뇌성마비로 온몸을 쓰지 못하면서 남의 도움을 받아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면서도 밝게 웃는 그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보면 왜 당신이 못한 자이고 부끄러워해야 하는 자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사는 것이 재미없다고요,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초라하다고

요. 그래도 사는 것이 힘들다고요, 그래도 남보다 못해서 불만이라고요. 그렇다면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려야 할 이유와 자격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환자보다, 노숙자보다, 시장의 할머니보다, 장애인보다, 더 나은 환경을 누릴 자격은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 보십시오.

그들보다 더 착한가요? 그들보다 더 나은 무엇이 있는가요? 잘한 것이 있는가요? 그런데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육신의 더 나은 것만 추구하는 우리야말로 하나님께 악행을 저지르며 살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덕분에 살고 있으면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안에는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러한 당신은 오늘 글을 쓰십시오. 숨을 쉬게 하시고, 하루를 살게 하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글을 써보십시오.

나 같은 자에게 함께 해주시고 오늘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한 것을 감사로 돌리지 않는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 앞에서 나는 정말 아무 할 말도 없는 십자가의 원수일 뿐이라고, 그런데도 나를 용서하시고 죄 없다고 하신 그 은혜의 깊이를 알아가고 감사하게 해달라고 조용히 글을 쓰십시오.

이것을 오늘 여러분의 할 일로 삼으십시오. 감사는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의 기쁨이 있게 할 것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13-8 421-9049 425-9049 070-7648-9049

<http://onlycross.net> 신윤식목사 sys5806@hanmail.net 019-832-9049

주일 설교



피하시는 예수님

마 12:14-21

● 불만투성이 인간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동산을 우리는 지상낙원이라고 부릅니다. 도둑도 없고 미워하는 것도 없고 살기 위해 누군가와 경쟁해야 하는 것도 없고 먹고 살기 위해 수고롭게 일해야 하는 것도 없이 여기저기 널려 있는 과일만 먹고도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에덴동산이야말로 천국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에덴동산을 잃어버린 것을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에덴동산이 지금도 존재한다면 여러분은 그곳에 갈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곳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지금의 인간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원하는 세상과 삶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에덴동산에 대해서도 자신이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록 에덴동산이라고 해도 자신의 상상이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불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세상과 삶이 주어지기 전에는 그 누구도 현재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불만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의 인간이 에덴동산에 들어간다면 천국 같은 삶을 생각하기보다는 에덴을 개발해서 관광 상품으로 만들 계획을 세우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에덴으로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즉 에덴동산이 우리들 눈앞에 나타난다고 해도 인간은 그 에덴동산에 대해 불만을 가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그 어떤 인간에게도 불만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든 세상에겐든 만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한 대로 자신이 생각하고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불만은 예수님이나 믿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또한 믿음에 대해서도 만족하십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에덴을 기대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것

이 믿음이고 예수 믿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원하는 것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도, 믿음에 대해서도 불만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에는 전혀 기대를 갖지 않는 결과까지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에 힘이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피하시는 예수님

여러분은 믿음이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까? 어쨌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조롱을 하는 세상 사람들의 기를 죽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역사해 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대와는 달리 주어지는 결과는 오히려 하나님도 예수님도 없는 것 같은 상황일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속성과 기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문제로 논쟁을 하신 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을 한다는 것을 아시고 그곳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물리칠 능력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큰 우박이 그들에게만 내리게 하실 수도 있고, 그들이 멸시하는 문둥병이 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 도망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굴복시키며 예수님을 믿게 하려면 도망치지 말고 맞서면서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들 앞에서 그들의 믿음은 잘못된 것임을 외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메시아다운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리새인들을 무릎 꿇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원하고 믿음 또한 우리에게 그런 쾌감과 승리를 맛보게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마치 도망치는 것처럼 피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피하여 떠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를 하십니다(15,16절). 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까지 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18-21절을 보면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꺾여가는 심지를 고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

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2:1-4절의 메시아의 대한 예언으로써 예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자기를 죽이려고 의논하는 바리새인들로부터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서 떠나시는 것이 어떻게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는 것이 될까요?

● 예언에 나타난 메시아

이사야 42:1-4절의 예언의 내용은 메시아가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분으로 오시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는 세상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않는 모습으로 오십니다. 즉 세상의 뒤통수를 치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인간의 상상과 기대로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오시고, 그로 인해서 세상 누구도 메시아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강한 용사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한 메시아를 신앙하는 결과에 대한 기대도 현실적인 것일 수밖에 없고, 그것은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벗어나 다윗의 영광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믿음의 기대에 부응해 주는 메시아가 되려면 필히 세상을 이기는 강한 힘을 가진 용사와 같은 모습으로 와야만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선지자의 예언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의 상상과 기대에 기초한 메시아일 뿐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점차 유대인들의 기대에서 벗어나는 모습만 보입니다. 심지어는 세례요한조차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 의문을 가졌을 정도로 사람들이 기대한 메시아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또한 심판과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자로 낙인찍힌 병자들을 가까이 하는, 도무지 그들이 상상한 메시아로서는 할 수 없는 일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보고도 알 수 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워서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날지에 대해 이미 예언을 하였고, 예수님은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을 죽이려고 의논하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떠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기억하는 것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꺾여가는 심지를 꺾지 아니하기를’ 라는 내용일 것입니다. 이 구절을 근거해서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꺾여가는 등불을 꺾지 아니하시는 사랑과 자비의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바로 인

간이 기대하고 상상하는 예수님을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 멋대로 만들어 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상한 갈대도 귀하게 여겨 꺾지 않으시고 꺾여가는 등불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 꺾지 않으시는 사랑과 자비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한 갈대와 꺾여가는 등불은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합니다. 당장 꺾어 버려야 하고 꺾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 심판을 잠시 미루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심판을 미루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아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미루시는 것입니다.

18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고 말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방이 알게 하기 위해 일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제멋대로 생각합니다. 메시아가 오는 것도 믿음으로 살지 않은 부정한 자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면서 심판과 멸망을 함께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정한 자로 취급된 병자들을 가까이 합니다. 심판을 받아야 하는 부정한 자를 가까이 하고 그들을 고치시는 것으로써 세상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잘못된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인간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병자를 고치신 것은 예수님은 저주 아래 있는 부정한 자를 위해 오셨음을 보여주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이 부정하고 더러운 자임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만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악한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악함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의를 믿지 않는 것임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준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방에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자가 죄인의 자리에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꺾여가는 등불을 꺾지 않으시는 메시아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바리새인에게서 떠나십니다.

● 기대와 다른 신앙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바리새인들을 당장에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불의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려는 바리새인들을 심판한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훼방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세상에 대해서는 항상 싸우고 이겨야 한다는 식으로 대항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절간에 돌을 던

지는 것도 마치 예수님을 위한 투사다운 행동으로 보기도 하고, 복잡한 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는 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당연한 싸움으로 여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자는 그런 방식으로 세상에 대해 싸우고, 물리적인 힘으로 이기는 사람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힘을 자신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우월한 자리에 올라서는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 식으로 믿음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 같지도 않고, 예수님이 신자에게 함께 하지도 않는 것 같은 미미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바리새인에게 본패를 보여주지 않고 피해 버리는 것처럼 맥 빠진 모습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믿음을 상상한 적 있습니까?

믿음은 세상의 기를 죽이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그런 것이라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피하시는 것은 비겁한 것이고 믿음의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맞서 싸우시고 그들을 굴복시키는 것이 믿음다운 행동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외적인 힘을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빙자해서 칼을 들고 세상을 이기는 방식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또한 예수님에게 악행을 행한 것을 기준으로 여기게 될 것이고, 자연히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심판의 기준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심판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서도 벗어난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재미없고 맥 빠진 것처럼 생각되니까? 믿음이 힘이 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믿음을 향한 여러분의 생각과 기대가 버려져야 합니다. 믿음에 대해 갖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과 기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에 대해 불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 불만을 가진 사람에게 믿음은 기쁨이 되고 힘이 될 수는 없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고 말합니다. 이처럼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는 다투지도 않고 소리 지르지도 않는 조용한 분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길에서 메시아의 소리를 듣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누구도 메시아를 메시아로 알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오신다는 뜻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사람들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길을 가시기 위해 바리새인을 피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을 심판했다면 아마 이스라엘 전역이 떠들썩했을 것이고, 심판이라는 예수님의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생각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약하고 힘없는 자처럼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 역시 그러한 모습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자를 강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 강함을 세상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할 것입니다. 그래도 신자는 조용하게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죄인된 나에게는 생명이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이 믿음 하나로 삽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이 흔들려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주일오후 설교



하나님의 비밀

골 2:1-5

(11강 2.7일 설교)

‘비밀’은 비밀을 알고 있는 쪽에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도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비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와 상관이 없는 불신자도 예수가 누구인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알려 주셔서 아니라 살아오면서 세상으로부터 듣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사도의 말은 잘못 되거나 과장된 말일까요? 아니면 사도 당시에 그리스도는 아무나 알 수 없는 비밀이었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전파되어 모두가 알게 된 것입니까? 그런 것이라면 성경의 내용은 세월의 흐름과 함께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사도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다면, 분명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따라서 지금 세상이 안다고 하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과 입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다른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롬 16:25-27절을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 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라는 말을 합니다.

이 구절에서도 사도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나타내신 바 된 것으로 말합니다. 또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알게 하신 것은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자는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믿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알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을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내셨다고 말합니다. 아무나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성도들에게만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성도는 하나님이 비밀을 나타내실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자신만이 알고 있는 비밀을 누구에게나 알려준다면 그것은 그와 아주 가까운 관계를 의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엡 2:12-13절에 보면 이방인인 우리는 원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어서 하나님과 떨어진 관계에 있었는데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자로 하여금 더욱 풍성히 예수를 알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이며 복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말씀 앞에서 어떤 말이 거짓으로 드러나는가 하면 할례를 행하고 절기를 지키는 등 인간의 열심과 실천으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것이 신자라면 신자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힘써야 할 부분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있다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운 관계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께 간절히 원하게 되는 것은 신자로서 성경에 충실해지는 것입니다. 신자가 성경에 충실하고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자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에 마음을 둔다면 복음에서 벗어난 말의 허점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자신의 상식과 지식에 맞는 말이면 모두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결국 복음이 아닌 말에 속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거짓된 말에 속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 밖에 없습니다. 하나

님의 비밀하신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깨닫는다면 다른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든 말을 분별하게 될 것이고 속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역시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신자와 사도의 얼굴을 보지 못한 모든 신자들에게까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 힘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자이기에 성경을 믿는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아시고 믿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거나 아예 성경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까? 신자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마음을 두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신자는 어떤 교묘한 말에도 속지 않을 것입니다.

신자의 신앙적 열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자신을 하나님과 더욱 가까운 관계로 나아가게 하고 복을 받게 한다는 것이 기독교 전부가 외치는 말이라고 해도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되기 위해 힘쓴다면 그것은 현재 자신은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에 있지 않다는 뜻이 됩니다. 가까운 관계가 아니기에 자신의 노력으로 가까게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기도하고 성경 보기에 힘쓰는 것, 또한 교회에서의 헌신과 봉사를 외치는 것, 선교와 구제를 강조하는 이 모든 것이 앞서 말한 의도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사도의 말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되었다면 더 이상 개선되어야 할 관계는 아닙니다. 즉 그리스도로 피로 이루어진 화목의 관계가 조금 부족하고 틈이 있어서 그 부족함과 틈을 우리의 노력과 정성을 추가해서 메워야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그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노력이 담긴 실천으로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되고자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신자가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고, 그러한 나를 십자가의 피로써 구원하셨음을 아는 것일까요? 물론 그러한 앎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된 신자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의 존귀함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그 어떤 것도 자신의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없는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헛됨을 보게 되고, 대신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이 모든 보화에 해당된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복을 얻기 위해서 따로 실천해야 할 행동은 없는 것입니다. 신자의 행동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의 은혜의 풍성을 증거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야 할 뿐인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신자의 믿음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시간이 얼마가 되었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에 있게 했습니다’라는 고백의 믿음에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기도를 몇 시간하고 성경을 몇 장 봤다는 것으로 차별되는 것이라면, 사도가 처음부터 그것을 언급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깨달으며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과 부요를 아는 것으로 이미 충족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써 차별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생들의 말의 시각에서 보면 믿음에는 차이가 있게 됩니다. 할례를 행한 사람과 행하지 않은 무할례자의 차이가 있고 절기를 지킨 사람과 지키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지금 식으로 말하면 주일을 지킨 사람과 지키지 않은 사람, 세례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서는 그 어떤 차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의 관계에 있게 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로 끌어가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면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고 말합니다.

질서 있게 행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행함을 말합니다. 바울은 할례 자체가 잘못된 것이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되었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도의 행동은 일관성이 없고 질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도는 유대인을 얻고,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질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행하는 것이 질서 있는 행함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착한 일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자신의 착함과 행동을 보지 않고 날마다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를 믿는 자로 살아갈 뿐입니다. 이것이 질서 있게 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된 신자의 행함입니다.

성경은 신자가 무엇을 행하든 그 행함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함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행하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신자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인해서 이미 모든 보화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복을 추가로 받아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사도가 골로새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 힘쓴 것과 목사가 교회에서 힘써야 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목사 자신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깨달아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의 감사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으로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도 보지 말고 여러분 자신도 보지 말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오. 왜냐하면 교회도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을 풍성한 기쁨으로 채워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달아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것입니다. 이 값이 여러분을 풍성한 기쁨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주일오후 설교



고 안에서

골 2:6-7

(12장 2.14일 설교)

‘동물농장’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보면 보통의 애완견과는 다른 사나운 행동을 보인 애완견을 개 훈련의 전문가가 등장하여 사나운 행동을 교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행동을 교정하여 애완견답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이러한 ‘행동교정’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자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은 신앙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며,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버리고 신자다운 행동으로 교정함으로써 신앙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표방하는 말들은 항상 인간의 행동을 앞세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행동을 교정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의 복음이 행동 교정을 요구하는 것이었고, 할례와 절기를 지키는 행동이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는 비 복음적인 것이라면, 바울은 아마 ‘그것은 복음이 아니니까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고 권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할례와 절기를 요구하는 거짓 선생들의 말에 대해 할례와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이 복음이라는 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할례와 절기를 지키고 지키지 않는 행위에 신앙의 기준을 두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이 되시고 신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신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간의 행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의 행함으로 인해서 이미 화목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또 다시 인간이 행동을 교정하고 실천을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곧 예수님이 행하신 의의 일을 보지 않는 것이고, 주 안에 있지 않은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골로새 교회의 행동을 교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즉 골로새 교회의 문제는 행동을 교정하여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에 대해 참된 감사가 있게 되면 자연히 해결되는 것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면 ‘할례를 행해야 믿음이다’는 식의 말들이 왜 잘못된 것인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할례를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한다면 그 말 역시 복음에서 벗어난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복음은 할례를 행한 것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고 할례를 행하여 신자답게 되고자 하는 그 생각이 잘못임을 말합니다.

사도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6,7절)고 말합니다.

사도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었으니’라고 말하기보다는 ‘주로 받았으니’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주가 거짓 선생들의 주와 다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는 사도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만약 다른 예수 위에 세워졌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이고 예배를 드리고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다고 해서 교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어 그 위에 세워져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합니다.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것은 기독교라는 이름을 앞세운 종교모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임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모든 교회는 자기들이야말로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선교와 구제 등 교회가 행하는 여러 가지의 사업을 내세울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는 다른 교회와는 다르다는 것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헌금을 강요하지 않고 목사가 권위를 주장하지 않는 등을 내세우면서 우리가 말로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참된 교회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헌금을 강요하든 강요하지 않든 그것이 교회됨의 증거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됨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증거될 뿐인데, 헌금을 강요하지 않고 목사가 권위를

주장하지 않는 것 등은 사실 성령의 역사와 무관하게 목사의 목회 철학과 신념에 의해서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성령으로만 나타나게 되어 있고, 이 교회는 지상에 세워진 제도적인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무리 민주적이고 이상적인 제도를 만들어 그 제도에 따라 운영을 한다고 해도 인간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도 세워질 수도 없습니다.

골 1:23절을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한 터는 바울이 전한 복음, 즉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말을 하는 것은, 골로새 교회가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뜻이 됩니다. 이 말은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책망하면서 부숴버립니다. 보이는 형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상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을 인도하고 의지했던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죽은 것으로 여기고 의지할 대상이 사라진 것에 대한 불안감을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대체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가 자신들을 평안의 삶으로 인도해주시기를 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입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으로 인도받기 받기 위해서 의지하는 그것이 곧 우상인 것입니다.

현대 교회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주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원하는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선전합니다. 인간이 상상하고 원하고 기대하는 예수로 만들어 놓고 ‘이것이 예수다’라고 하면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전한 주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도 아니며,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에 의하면 신자는 이미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의 귀한 피로 인해서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에게 이미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는 아들의 나라로 가기 위해 실천해야 할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움 받기 위해 행동을 고치고 실천해야 할 것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행함이 의가 되어 의와 복이 될 것이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바울의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신자는 바울이 전한 예수님을 주로 받았습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를 주로 받았을 때 그 안에서 행할 때 나타나는 열매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고 말합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를 주로 받은 신자라면 그 안에서 주가 행하신 일을 보게 됩니다. 주가 행하신 일은 앞서 말한 대로 신자에게 하나님과의 화목과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움 받는 복으로 다가옵니다. 신자의 행함과 상관이 없이 예수님의 행하심이 나의 의가 되어 죄 없다는 선언을 받는 것이야말로 세상의 법칙과 질서에서는 있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받은 신자가 그 안에서 행할 것은 주의 행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만약 인간의 선으로 악을 덮는 방식이라면 선을 행하는 자기 자랑과 과시가 앞설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것입니다. 복음에서 자기 과시와 자랑은 나타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이 감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사도가 전한 예수를 주로 받은 증거입니다. 신자가 바울이 전한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었다면, 그리고 복음을 따라 행한다면 감사함이 넘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삶의 어려움과 힘겨움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변함없이 주를 바라보고 신뢰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실천과 행함으로 요구하고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신앙다운 것으로 여기며 그것이 복이 된다는 다른 복음은 인간에게는 수고와 짐으로 밖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고 그 안에 있다는 것이 기적이며 복인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기적과 복을 구하는 것은 신자를 더욱 깊은 실망으로 밀어 넣을 뿐입니다.

신자는 구원의 문제로 불안해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복을 받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신자는 예수 안에서 이미 충만으로 거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충만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칩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수요일 설교



죄를 드러내심

암 4:1-5

(7강 2.17일 설교)

대개의 기독교인들은 행함으로 믿음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행함에 의해 좋은 믿음으로 칭찬을 받는다면 또한 행

함에 의해 그 믿음이 추락할 때가 있음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믿음이 추락하지 않기 위해, 믿음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한결같은 행함을 유지해야 하고, 믿음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행함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사는 결과가 됩니다.

하지만 신자가 시선을 행함에 두게 되면 한 가지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의 일관성이 없고 변덕스럽고 통일성이 없이 다양한 행함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믿음으로 판단해야 하는가입니다. 모든 인간의 행함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또한 변덕스럽습니다. 기도를 해도 시간의 양이 다르고, 기도하는 시간 역시 기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헌금을 해도 그 액수가 다릅니다. 그 액수 역시 기분과 감정에 따라 변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만 하면 되고 헌금만 하면 된다고는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 기도의 시간과 헌금의 액수에 따라 믿음이 다르게 대우 받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행함을 무작정 믿음으로 밀어 붙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린 아모스를 보면서 신앙의 여부가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판단될 수 없음을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에 열심이었고 나라까지 그 어느 때보다 부강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린다고 자부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죄를 지적받고 심판을 경고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을 보면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이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 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 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산은 아주 비옥한 땅을 뜻합니다. 그렇게 보면 바산의 암소는 비옥한 땅에서 먹고 자람으로 살이 썩은 암소로서, 이스라엘의 부요한 여자들로 볼 수 있고 이스라엘의 부요한 자들을 의미하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바산의 암소가 누구를 가리키든 문제는 부요한 자들의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악행입니다.

이들의 악행은 힘없고 가난한 자들의 가장에게까지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고 큰소리칠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이 구절의 '가장' 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확실하지가 않아 해석이 조금 애매하기도 합니다. 바산의 암소를 사치와 방종을 일삼는 상류층 부인으로 보고 가장을 문자 그대로 그들의 남편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힘없고 가난한 집의 가장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석하든 당시 이스라엘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향한 부요한 자들의 학대와 핍박이 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심판의

때가 이를 것이라고 맹세하실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의 그 어떤 신앙적 행함으로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4절에서 **“너희는 벤엘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삼일마다 너희 십일조를 드리며”**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의 신앙적 행위는 참으로 대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벤엘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했다고 말하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벤엘과 길갈에 가서 살인이나 도둑질 같은 악행을 행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벤엘은 아곱이 하나님을 만나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서 여로보암이 세운 성소가 있는 곳이고, 길갈은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후에 열 두 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운 곳입니다. 이러한 벤엘과 길갈은 모두 이스라엘에게는 신앙적으로 큰 상징이 되고 기념을 할 만한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종교적 상징성을 띄고 있는 곳에서 무엇을 했을까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즉 제사를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벤엘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한다고 말하는 것은 제사를 포함한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이 하나님에 보일 때는 범죄하고 죄를 더한 것 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아침마다 희생을 드리고 삼일마다 십일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역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삼일마다 십일조를 바칠 정도로 대단한 신앙의 열심을 보였음을 뜻합니다. 지금의 교회에서라면 이러한 신앙은 분명 대단한 믿음으로 판단되면서 본받을만한 믿음으로 크게 칭송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모스는 이처럼 대단한 열심을 보인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면서 심판을 경고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신앙적 실천이 없었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실천의 열심으로 인해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행함으로 믿음을 판단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대 교회는 신앙의 기준을 실천에 두고 있습니다. 경건을 실천하고 봉사의 열심이 있는 것만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강조합니다. 또한 그러한 말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은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무리한 열심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열심을 오히려 범죄를 더하는 것으로 평가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은 열심 자체를 신앙으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시고 심판을 경고하시는 이유가 그들의 도덕적인 타락이나 종교적 의식의 몰락이나 나태함 때문이 아니란 것입니다. 오히려 종교적인 면에서 본다면 이스라엘은 칭찬을 받아야 할 정도로 열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보

여준 열심을 믿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죄를 더하는 악행으로 보셨다는 것이 우리가 주지해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교회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무작정 열심만을 강조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사 1:13절에도 보면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는 말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책망한 것도 아모스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경건으로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제사나 제물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는 그들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는 사 1:16,17절의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 받는 자를 도와 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는 내용에서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악한 행실은 고아와 과부, 즉 약자를 학대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모스가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악행과 동일합니다.

현대 교인들은 열심을 무조건 신앙으로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열심이 부족한 것은 신앙도 그만큼 부족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는 열심을 강조합니다. 그 열심이 오히려 악을 쌓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채 오로지 교회를 위한 열심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은 신자의 열심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성경에는 없는 말을 제멋대로 조작해서 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열심을 악행을 쌓는 것으로 책망하시고 심판을 경고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분량으로 이해합니다. 열심이 많을수록 신앙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열심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복으로 보상 받는다고 믿고 열심을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자신을 위한 열심입니다.

아모스는 5절에서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고 말합니다.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는 말씀은 자기 기쁨을 위해서 행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 행했던 제사, 십일조를 바쳤던 것, 그 모든 열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쁨을 위한 행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신앙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말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 행할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물론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너희들이 못 받은 은혜를 나는 받았다’는 자기 과시가 있습니다. ‘나는 너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속성에 의해 약자가 학대를 받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죄라고 하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결국 이스라엘처럼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하나님으로부터는 악행을 쌓는 자로 책망을 받고 심판을 경고 받는 결과만 초래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실천 몇 가지만 하면 신앙의 문제는 해결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실천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는 본문의 말씀을 포함해서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열심히 하면 복주는 그런 그리스도도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피를 향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이 마음은 자기의 죄를 보는 마음입니다. 죄가 내게 있고 이 죄를 위해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믿는 그 믿음이라면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기쁨이 됩니다. 이것이 은혜의 세계를 사는 것이고, 이 세계에는 약자 강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죄인으로서 주를 소망할 뿐입니다.

수요일 설교



하나님의 행하심

암 4:6-13

(8강 2.24일 설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의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칙에서 벗어나 있다면 인간이 아무리 구원을 원하고 구원을 위해 힘쓴다고 해도 구원과는 상관없게 됩니다. 따라서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심판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하나님의 원칙에 대해서는 소홀합니다. 단지 인간이 세우고 알고 있는 원칙에만 충실하면 되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신앙을 열심히 연결하여 강조하고 열심히만 있으면 구원이든 복이든 모두 확보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인간이 세운 구원의 원칙, 복의

원칙은 열심 있는 신앙생활이며 헌신의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선지자로 세워서 제사와 제물 바치는 일에 열심이었던 이스라엘을 책망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무엇에 대해서 왜 책망을 받고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아예 눈을 감아 버립니다. 열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넘치는 열심을 보인 이스라엘을 책망하신다는 것은, 오늘날 교회가 그토록 강조하는 열심도 하나님의 책망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둔다면 열심만을 강조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열심이 그들에게 복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 증거되었다면 얼마든지 열심을 강조하겠지만 잘못된 열심은 오히려 스스로를 속이고 삼키는 결과만 초래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한 대로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뱀엘에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한다고 책망합니다. 이스라엘이 뱀엘과 길갈에서 한 것은 제사 드리는 것이고 제물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아침마다 희생을 드리고 삼일마다 십일조를 바치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그들의 열심을 신앙으로 인정하지 않고 죄를 더하는 것으로 책망합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신앙의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 일하시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기근, 가뭄, 농작물의 실패, 열병과 전쟁, 성읍의 붕괴 등입니다. 이것이 과거 이스라엘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던 것입니다.

6절을 보면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뜨리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읍에 식량이 떨어지게 하셨는데 그 목적은 굶어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는 것이 인간의 완고함입니다.

12,13절의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 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는 말씀은 돌리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무시한 채 돌아오지 않는 인간의 완고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고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는 책망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리고, 삼일마다 십일조를 바치며, 주

일에도 빠지지 않고 예배에 충실한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모스의 책망을 듣는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근거로 해서 죄를 생각하고 신앙 없음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행동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면 죄의 문제는 자신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여길 것이고 자신은 이미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결국 아모스의 책망에 대해서는 귀를 닫는 반응을 보일 뿐입니다.

소위 신앙에 열심히 있다는 사람들의 문제가 이것입니다. 또한 무작정 열심을 강조하는 위험 또한 이것입니다. 열심이 있기에 자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된 복음 밖으로 벗어나는 생각이기 때문에 참으로 위험한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음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 수많은 재앙을 동원하여 일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돌아가지 않고 자기들의 길만을 갔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그러한 상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자기 열심에 빠져 스스로 속고 있고, 부강하고 평안하다는 환경에 빠져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열심은 참으로 위험한 유혹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기 열심을 보게 되면 열심을 근거해서 '나는 믿음이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런 판단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자신에게 해당이 되는 성경과 해당이 되지 않는 성경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본문과 같은 내용은 믿음이 없고 열심히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해당이 될 뿐이지 열심 있는 자신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으로 찾는다면, 과연 그 사람의 마음에 죄악 가운데 있고 믿음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에게 마음을 두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예배라고 할 수 있었습니까? 결국 죄를 더하는 것일 뿐입니다.

본문의 재앙을 보면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몸을 치십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건강과 먹는 것과 마실 것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 건강의 문제까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는 것이기에, 내 수중에 있다고 해도 내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신자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한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신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으면 그 것으로 충분하고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에 자신을 맡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삶을 위해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않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행하는 제사는 제사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모스의 책망입니다.

신자는 재앙을 보면서 나에게 발생한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관심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앙이 일어난 자들을 위해 성금을 보내는 것이 재앙을 일으킨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성금을 보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믿음이라는 생각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거듭되는 재앙을 보면서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배워야 합니다. 사실 인간이 자기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강이든 돈이든 자식이든, 그 어느 것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것이고, 어떤 삶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과 인생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의 도구로 부름 받았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이킴 받은 믿음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지만 인간이 실천하는 어떤 행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 행함으로 자신을 과시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믿음의 기준이 되지도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원칙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킴 받은 신자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알게 되고 감사합니다. 인간의 열심으로는 불가능한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완악한 우리 마음을 깨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두게 하시며 예수님의 능력으로 구원되었음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이킴 받은 마음입니다.

이 믿음은 자기 열심, 즉 아침마다 제사를 드리든 삼일마다 십일조를 하든 그것을 기쁨으로 삼지 않습니다. 신자에게 기쁨의 근거는 언제나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자를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으로 세상에 남겨 놓기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 일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시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일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에게 있는 욕망과는 상관없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욕망에 붙들린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없습니다. 욕망으로 가득한 눈에 하나님의 일이 보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지자의 외침 앞에서 내가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 아닌가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신앙이 아닌 종교로 빠진 것은 아닌지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행함이 곧 믿음의 증거물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참된 믿음의 길로 가게 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주일 낮 예배

오전 11시

인도 / 신윤식 목사

목장기도	다 암 께
사도신경	다 암 께
찬 송	94장(통102)
교 독 문	130(고난)
기 도	이영민 장로
찬 송	570장(통453)
성경봉독	마 12:14-21
설교제목	피아시는 예수님(79장)
기 도	설 교 자
찬 송	454장(통508)
교회소식	이영민 장로
찬 송	5장(통3)
축 도	설 교 자

다음주기도 : 이영민 장로

주일오후 예배

오후 2:20

인도 / 신윤식 목사

사도신경	다 암 께
찬 송	390장(통444)
기 도	송수경 집사
찬 송	400장(통463)
성경봉독	골 2:16-23
설교제목	순종아찌 말라(14장)
기 도	설 교 자
찬 송	457장(통510)
주기도문	다암께

다음주기도 : 오연주 집사

수요일 예배

오후 7:30

인도 / 신윤식 목사

아모스 강해(11장)

사는 것이 힘들다 해도

신 윤 식



황폐하게 메말라가는
깊은 속 언저리에
푸른 물기라도 축축이
적셔지는 날이라면
그것은 내게 파고드는
말씀 한 조각 때문이다.

현실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의 문제를
어떻게 끌어안아야 할지
고민되고 힘겨워 할 때
그분이 말씀되어 찾아와
주저않은 마음 일으켜 세우시면
내 속은 어느새
작은 불꽃으로 일렁인다.

힘겨운 영혼에
아침 이슬 같은 기쁨이 스며들면
메마른 숲에도 새들이 찾아들고
애뜻하게 사랑 노래 부르는데

세상에 갈려
힘들다 신음하는 사람들아,
사는 것이 아픔으로 점철된다 해도
오늘도 살아 숨 쉬니
어두운 영혼에 불 밝혀 줄
주님과 함께 남은 길을 걸어보자

교회소식

1. 그동안 쉬었던 주일 성경공부를 오늘부터 계속 합니다.
성경공부는 매월 둘째, 넷째 주일에 하고 첫째와 셋째 주일은 구역모임으로 모이고 다섯째 주일은 자유롭게 교제 하시면 됩니다. 시간은 오후 1시입니다.



예 배	시 간	예 배	시 간
주일 낮	오전 11:00	어린이	오후 1:00
주일오후	오후 2:20	장년성경공부	(주)오후 1:00
수요일	오후 7:30	청년성경공부	(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기도회	오후 8:00